

##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1980년 5월 그대로’ 복원

●문체부도청복원추진단청사진 공개

외부 5·18 이전 시점으로...내부는 ‘역사 재현’에 방점  
‘소년이 온다’ 연계 콘텐츠 위해 한강 작가와 접촉 중  
“총기 교육 전시” 시민군 폭력적으로 비칠 것” 우려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월 당시 그대로 원형 복원된다.

특히 옛 전남도청 내·외부를 ‘항쟁의 역사’를 떠올리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역사적 의미를 담은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 콘텐츠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의 진척도와 기본 설계 중인 전시 콘텐츠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7일 시작된 복원 사업은 오는 2025년 10월3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준 외부 복원 작업 공정률은 93%, 내부 콘텐츠 구현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복원 사업의 초점은 모두 ‘원형 복원’이다. 외부는 5·18민주화운동 이전 시점으로 복원하고, 내부는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외부 복원 작업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곳에서 진행 중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의 경우 회의실과 이어지는 연결 통로를 재구축 중이며, 바깥 창호도 항쟁으로 인해 파손되기 전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건물 마감재·바닥재·벽지 등을 당시의 자재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단, 현재 생산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 최대한 유사한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항쟁의 역사를 담은 도청 본관의 내부 콘텐츠는 철저히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중이며 사료가 부족한 부분은 공간에 맞는 전시를 진행한다.

열린 도서관의 기능을 할 도청회의실은 추진단이 확보한 미공개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경찰국 본관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미디어 기록물을 한데 모으는 한편, 상무관은 오월영령을 상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가 옛 전남도청 일원인 만큼 연계 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설 속 주인공 등호는 고(故) 문재학 열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 열사는 1980년 5월27일 마지막까지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산화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현재 ‘소년이 온다’와 연계한 전시 콘텐츠를 위해 한강 작가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퇴직 언론인들이 요청했던 ‘언론검열관실’ 복원에 대해 추진단은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후 복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청 본관 3층 상황실에 전시할 ‘최후 항쟁을 위한 총기 사용 교육 내용’을 놓고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군의 정당행위가 다소 폭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원형 복원’의 대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혁기자



특별법 제정 퍼포먼스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전방위 역량 결집

국회서 지방자치 전문가 등 참여 세미나 공론화 ‘군불’  
김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 주도 新발전 모델”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올해 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국회·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인 공론화를 위해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사·군 분권담당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관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도

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등

합관리 권한 이양 ▲공학·항공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주철현·신정훈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7월엔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 Today

명량농원 ‘박성관 유기농 명인’ 9면  
광주전남스타브랜드...‘해신개발’ 12면  
김도영,연말시상식씩씩이시동 16면

전라남도

OK! Now Jeonnam

## 무안국제공항에서 떠나는 - 간단 편리 해외여행

무안국제공항

MUAN INTERNATIONAL AIRPORT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b>나가사키</b> 화,목,토 제주항공 24.12.8 ~ 25.3.29	<b>타이베이</b> 화,토 제주항공 24.12.8 ~ 25.3.29  <b>매일 진에어</b> 24.12.2 ~ 25.3.29	<b>방콕</b> 화,목,토,일 제주항공 24.12.8 ~ 25.3.29	<b>마닐라</b> 주 2회 로얄에어필리핀 25.1월 ~ 25.3월	<b>나트랑</b> 주 2회 범부항공 24.9.15 ~ 25.3.30 수,토 비엳젯항공 24.11.26 ~ 25.3.12	<b>시엠립</b> 목,일 캄보디아에어웨이 24.12.29 ~ 25.3.13
<b>오사카</b> 매일 진에어 24.12.2 ~ 25.3.29				<b>다낭</b> 주 2회 범부항공 24.8.5 ~ 25.3.25 수,토 비엳젯항공 24.11.2 ~ 25.3.15	<b>무안-제주</b> 월,수,금,일 제주항공 24.12.9 ~
<b>나리타</b> 매일 진에어 24.12.2 ~ 25.3.29	<b>말레이시아</b> <b>코타나카발루</b> 화,금 제주항공 24.12.8 ~ 25.3.29	<b>라오스</b> <b>비엔티안</b> 주 2회 라오항공 24.10.3 ~ 25.3.24 <b>루앙프라방</b> 주 2회 라오항공 24.12.1 ~ 25.2.27	<b>중국</b> <b>항저우</b> 수,일 톱에어 24.10.2 ~ 25.3.26 <b>장가계</b> 화,금 사천항공 24.10.27 ~ 25.3.29	<b>푸꾸옥</b> 주 2회 비엳젯항공 24.12.20 ~ 25.3.2	